

승승승승승승...타이거즈, 독수리 날개도 꺾다



KIA가 14일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한화를 5-2로 꺾고 6연승을 기록한 뒤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승리를 기뻐하고 있다. 4연승을 달렸던 2위 NC가 이날 삼성에 패하면서 1위 KIA와 1.5경기 차가 됐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14일 한화에 5-2로 이기며 주말전 '스립' 김도영 선두 타자 초구홈런·정해영 8연속 'S' 6연승 질주하며 2위에 1.5게임차 '전고한 1위'

연승 질주에 성공했다 KIA가 14일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열린 한화와의 시즌 3차전을 5-2 승리로 장식하면서 6연승을 기록했다. 4연승 질주를 하며 1위 KIA를 반 경기 차로 추격했던 2위 NC가 이날 삼성에 5-12로 패하면서 1.5경기 차로 멀어졌다. 김도영이 경기 시작과 함께 1회초 선두타자 초구 홈런을 장식하면서 수훈 선수가 됐고, 경기 마지막

'호랑이 군단'이 6시간에는 정해영이 2사 1-3루의 위기를 넘고 8경기 연속 세이브를 기록했다. 1회 첫 타석부터 김도영이 홈런포를 가동했다. 리드오프로 타석 전면에 선 김도영은 산체스의 초구 직구를 공략해 좌월솔로포를 장식했다. 1회초 선두타자 초구 홈런은 시즌 3번째, 통산 44번째이자 개인 첫 번째 기록이다. KIA는 이창진과 이우성의 연속 볼넷으로 분위기를 이어간 뒤 산체스의 송구 실책을 더해 2-0을 만들었다.

4-2로 앞선 9회에는 김호령이 손맛을 봤다. 7회 이창진의 대주자로 들어갔던 김호령은 9회 선두타자로 첫 타석에 들어서 주현상을 마추했다. 김호령은 풀카운트 승부 끝에 8구째 144km 직구를 좌측 담장 밖으로 보내면서 시즌 마수결이 홈런이자 통산 20번째 홈런을 만들었다. KIA 선발 제임스 네일은 1회 2점의 지원을 받았지만 개인 4연승에는 이르지 못했다. 3회까지 5개의 탈삼진을 뺏아내는 등 위력적인 피칭을 선보인 네일이 2-0으로 앞선 4회말도 페라자의 헛스윙 삼진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네일이 안치홍에게 중전안타를 맞은 뒤 도루로 2루까지 허용했다. 이어 노시환을 우익수 플라이로 잡으면 투아웃은 채웠지만 김태연에게 중전 적시타를 맞으면서 2-1이 됐다. 네일은 선두타자 최재훈에게 우중간 2루타를 내준 5회는 실점 없이 막았지만 6회를 마무리하지 못

했다. 안치홍과 노시환에게 연달아 안타를 맞으면서 무사 1-2루, 김태연의 희생번트로 주자들이 이동했다. 이어 최인호의 중견수 희생플라이가 나오면서 3루에 있던 안치홍이 홈에 들어왔다. 2-2로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간 뒤 네일이 최재훈에게 몸에 맞는 볼을 허용하자 KIA의 불펜이 움직였다. 이준영이 두 번째 투수로 나와 대타 김강민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네일의 4번째 등판 성적은 5.2이닝(10구) 7피안타 1볼넷 7탈삼진 2실점이 됐다. 지난 9일 LG전에서 7이닝 무실점의 승리투수가 됐던 네일은 4일 휴식 뒤 출전한 한화전에서는 처음 웰리타이스트를 이루지 못했다. 네일이 승수를 추가하지 못했지만, 팀의 연승은

계속됐다. 최지민과 전상현이 각각 7회와 8회를 삼자범퇴로 처리한 뒤 9회말 5-2에서 마무리 정해영이 출격했다. 정해영은 첫 타자 최인호를 초구에 유격수 플라이로 잡아냈지만 최재훈과 황영목에게 연속 안타를 맞았다. 1사 1-2루의 위기에서 정해영이 문현민을 상대로 2루 땅볼을 유도하면서 선명주자를 잡아냈다. 이어 이진영의 매서운 타구가 좌익수 방향으로 뻗어갔지만 소크라테스의 글러브에 공이 빨려 들어가면서 경기가 KIA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정해영은 올 시즌 등판한 8경기에서 무실점 행진 이어가면서 8번째 세이브를 수확했다. 한편 이날 경기장에는 1만 2000명정도가 입장하면서 시즌 31번째 매진이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16일 홈 최종전에 이어 한화 홈 9경기 연속 매진으로 구단 최다 타이 기록이다. /김여울 기자 wool@

'72홀 노 보기' 놓쳤지만...박지영 KLPGA 시즌 첫 승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 제패 박지영(28)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에서 우승했다. 박지영은 14일 인천 클럽72 하늘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6개,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 합계 22언더파 266타를 기록한 박지영은 2위 정윤지(16언더파 272타)를 6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72홀 266타(22언더파)는 KLPGA 투어 역대 2번째로 적은 타수다. 이 부문 최소 기록은 265타(23언더파)다. 박지영은 올 시즌 네 번째 대회에서 마수결이 우

승을 챙기고 통산 8승을 쌓았다. 박지영은 올해 3회째를 맞는 이 대회 초대 챔피언이기도 하다. 같은 대회 트로피를 2년 만에 또 수신했다. 우승 상금 1억8000만원을 챙긴 박지영은 상금랭킹을 종전 27위에서 3위(2억722만원)로 끌어올렸다. 대상 포인트 랭킹은 4위(90점)다. 박지영의 통산 상금은 40억원대를 돌파해 4위(41억5186만원)를 유지했다. 3위 이정민(41억9360만원)과 약 4000만원 차이다. 박지영은 KLPGA 투어 사상 첫 '72홀 노 보기' 우승을 노려봤으나 아쉽게 놓쳤다. 노 보기 우승 자체는 투어 사상 총 9차례 있었지만 모두 2라운드 혹은 3라운드로 치러진 대회였다. 박지영은 첫날 1라운드에서 버디 5개를 잡았고

2, 3라운드에서는 차례로 버디 6개씩 낚았다. 그리고 이날 4라운드 15번 홀까지 '노 보기 행진'을 벌이다가 16번 홀(파3)에서 처음 보기를 찍어냈다. 티샷이 크게 벗어나 그린 왼쪽 뒤편으로 굴러갔고 홀까지의 거리는 약 30m였다. 박지영은 두 번째 샷에서 4.1m 옆까지 불었으나 결국 두 번의 퍼트 노 보기를 기록했다. 아쉬움을 애써 묻은 박지영은 놀라운 집중력으로 대회를 기분 좋게 마쳤다. 17번 홀(파4)을 파로 지킨 뒤 18번 홀(파5)에서 약 13m 버디 퍼트를 떨어트렸다. 조아연과 박현경이 공동 3위(12언더파 276타)를 달렸다. 공동 5위(11언더파 277타)에는 이예원, 배소현, 김지수, 이재경, 노승희, 이기영 등 6명이 자리했다. /연합뉴스

김하성, 시즌 3번째 2루타...3경기 연속 안타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올 시즌 3번째 2루타를 치고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김하성은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방문 경기에 6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득점

을 기록했다. 2회와 5회 연속해서 우익수 뜬공으로 돌아선 김하성은 3번째 타석에서 장타를 쳤다. 샌디에이고가 1-4로 뒤진 7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김하성은 다저스 오른손 선발 개빈 스톤의 시속 154km 싱커를 받아쳐 1루수 옆을 뚫는 2루타를 쳤다.

김하성의 올 시즌 3번째 2루타이자 7번째 장타(홈런 2개, 3루타 2개)다. 다음 타자 타일러 웨이그가 우전 적시타를 쳐 김하성은 시즌 10번째 득점도 올렸다. 김하성은 9회 1사 1, 2루의 마지막 타석에서는 2루 땅볼에 그쳤다. 김하성의 시즌 타율은 0.217에서 0.219(64타수 14안타)로 조금 올랐다. 이날 샌디에이고는 다저스에 2-5로 패했다. /연합뉴스

페퍼스, 전 국가대표 리베로 한다혜 영입

리그 최상위권 수비·리시브 실력 프로여자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베테랑' 리베로 한다혜(사진)의 영입으로 수비력 보강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페퍼스는 지난 12일 "2023-2024시즌 종료 이후 FA(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은 리베로 한다혜를 계약 기간 3년, 연봉과 옵션 포함 총 8억 7000만원에 영입했다"고 밝혔다. 한다혜는 2013-2014시즌 GS칼텍스에 입단해 11시즌간 한 팀에 뛰어난 선수로 FA를 통해 처음 유니폼을 갈아입게 됐다. 11시즌의 리그 경력을 가진 그는 국가대표 경력도 보유한 베테랑 리베로다. 지난 시즌에는 세트당 평균 4.31개의 디그를 기록해 이 부문 전체 6위에 랭크되는 등 리그 최상위권의 수비, 리시브 실력을 보여줬다. 프로 입단 후 첫 이적을 택한 한다혜는 "가치를 인정하고 좋은 제안을 준 AI페퍼스와 지난 10년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준 GS칼텍스에 감사하다"며 "새 팀에 도움이 되기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제2의 배구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한다혜는 페퍼스의 '수비' 고민을 풀 중요한 카드가 될 전망이다. 지난 9일 페퍼스의 첫 훈련을 지휘한 장소연 감독은 "지난 시즌 박정아, 야스민 등 검증된 공



격 자원은 좋았지만 수비에 아쉬움을 느꼈다"고 언급했었다. 장 감독은 이번 영입에 대해 "수비력을 보강해 전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며 "한다혜의 풍부한 경험이 코트 내 안정감을 더해 팀의 공격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력 부진에 대한 고민을 이어 온 페퍼스는 한다혜의 영입으로 급한 불을 끈 모양새다. 페퍼스는 한다혜의 FA 영입에 이어 아시아쿼터 선발,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등을 통해 전력을 강화하고 분위기 쇄신에 나설 방침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